

여성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정 해 원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Women's Behavior of Underwear Consumption

Haewon Chung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nd Textiles, Incheon, Korea
(2003. 8. 4. 접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underwear consumption behavior of women, who were 20~59 years old and resided in Incheon during 2002 summer. 372 women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es, t-test, ANOVA, χ^2 -analyses. They usually purchased underwear considering comfort and economic factor at a discount store. They wore sleeveless T-shirts, but they didn't wear underpants except panties highly all the year round. Higher rate of them wore pantyhose instead of underpants during autumn, winter and spring. They demanded unstitching of stitches and lengthened sleeves in most of the groups. And older and lowly educated women group wanted widen armhole of upper underwear, and tighten waistband of panties. They generally washed in washing machine using cold water. Besides they added oxygen bleach and softner during wash and final rinse. Older than 20's boil their underwear frequently. The women in a group of boiling commonly answered the looseness of waistband. It is recommended not to boil but to soak with bleach added warm water for improving the whiteness and durability of underwear. For a treatment with higher temperature deprives the elasticity of spandex.

Key words: Underwear, Consumption behavior, Purchase, Satisfaction, Washing; 내의, 소비행동, 구매, 만족도, 세탁

I. 서 론

내의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므로 신체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피지를 흡수하거나, 외부로부터 오염을 막아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를 보호하거나 보온효과를 위하여 입어 왔다. 그러나 내의는 착용시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고, 걸옷의 실루엣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즉 내의는 위생성, 기능성이 우수하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류소비 시장규모는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통계(2003)에 의하면, 2002년에 약 12조9000억원 정도이며 내의는 1조 339억원 규모이다. 전 의류 시장에서 내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8% 내외이며 다른 품목에 비하여 성장률도 큰 편에 속한다. 한편 의복 별수를 기준으로 총 규모 3억 5천만 벌 중 내의는 6천 6백만 벌이 소비되어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의는 다른 의복에 비하여 1벌의 가격이 비교적 싼 편이지만 소비 규모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내의류 중에서 품목별 소비비율은 런닝 10.7%, 팬티 30.7%, 브래지어 20.8%, 파운데이션 13.1%, 잠옷 6.0%, 런닝 또는 브래지어와 팬티 또는 하의 내의가 포함된 세트는 19.0%를 차지하여, 내의류에서 체형 보정이외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비중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INHA-22684).

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직장여성의 증가, 중년 여성의 소비활동 패턴의 변화, 의류 유통 구조 중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의 재편성, 케이블 TV를 통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내의의 성능을 향상시킨 체형유지 기능,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보온성 향상, 항균과 소취 기능, 온도 조절 기능, 피부에 보습성을 부여하는 내의 제품도 생산되고 있으며, TV 홈쇼핑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의 고품질 중저가 속옷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홈쇼핑”, 2003) 등은 내의류에 대한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내의의 소재, 종류와 구입 방법 등 내의의 소비 행동이 현 시점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으나, 겉옷에 비하여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여성의 내의 구매, 착용과 불만족 및 관리 등 내의의 전반적인 소비 행동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바람직한 내의 제품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상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내의 구매

내의는 겉에 보이지 않으며, 피부와 접촉하므로 세탁횟수가 많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속성 상 다른 의복에 비하여 비내구재에 속하며, 구입과정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비교적 적게 들이는 저관여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은영, 1999). 이와 같은 이유로 내의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김미정, 황선진(1998)은 내의류의 구매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20대 전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서 적응성의 자기-감시, 본인 사용과 선물용 상황, 품질 지향과 이미지 지향의 광고에 따른 상품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개인적 자기-감시보다 과업 상황과 광고의 소구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세희, 이은영(2001)은 20~3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내의류 구매 성향에 따라 세분화한 집단에 따른 내의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지각 및 속성을 평가하여 여러 브랜드의 속성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남성은 소극적 무관심 구매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김유화 등(2001)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내의 상표 유사성 인식도를 바탕으로 내의상표를 군집화하여 선호도 조사 및 내의 구매행동 특성을 조사하여 캐주얼하며 클래식한 이미지 군보다는 캐주얼하며 패셔너블한 이미지와 우아한 이미지의 상표군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정혜원, 김구자(2002)는 60세 이상인 노년 여성의 내의 생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내의류의 구매에 관한 연구는 일부 계층의 구매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내의의 구입장소, 구입량, 구매 요인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내의 구매행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2. 내의 착용

착용하는 내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내의 소재에 관한 것으로, 시판 내의 중 면, 나일론과 친수 가공한 나일론 소재의 투습성과 흡습성을 섬유의 조직과 실의 굵기에 따라 비교한 연구(이순원 등 1988)와, 동일 소재로 생리반응을 조사하였을 때 친수가공 나일론이 면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조사한 연구(이순원 등 1989),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철 내의의 태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여름철 상의 내의는 가볍고 오돌도돌하며 보송보송한 소재로 밀착감이 크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나영주, 정혜원, 1999) 등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의의 종류가 다변화하여 가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 계층에 따라 착용하는 내의의 종류와 착용 시 만족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의의 제품과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내의 관리

내의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며, 위생적인 측면에서 얼은 색의 내의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탁이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의류 품목이다. 그러므로 내의의 세탁에 관한 연구로는 착용과 세탁이 반복되면 피지의 잔류량이 증가하나 효소인 리파제와 프로테아제의 첨가로 피지와 단백질 오구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황변지수는 피지의 축적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차옥선, 이일심, 1994), 내의를 반복하여 세탁할 때에는 사용

하는 세탁기의 종류에 따라 내의 각 부분의 변형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정혜원, 나영주, 1999)가 있으며, 그 외에 내의의 소재로도 이용되는 면 편성물의 구성 조건을 달리하여 세탁을 반복하였을 때의 변형 조사(Quaynor 등, 1999)와 세탁 후 촉감 및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측정 한 연구(Mackay 등, 1999) 등으로 주로 소재와 관련되어 연구되어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내의 관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의의 세탁실태를 조사하며, 이로부터 세탁 방법의 적합성 여부와 세탁방법이 내의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의 특성 및 내의 구매 동기의 요인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여성의 내의 착용 행동과 착용하고 있는 내의의 불만족요인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여성의 내의 관리행동의 특성을 밝히며, 내의를 폐기하게 되는 주된 요인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내의 구입 장소와 계절 별 착용하는 상·하 내의 종류는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구입 매수와 사이즈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정혜원, 김구자, 2002)를 참고하여 구성한 내의구매 행동과 관련된 25문항, 내의의

세탁 방법에 관한 5문항, 착용하는 내의의 만족도 및 폐기에 관한 8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02년 5월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 하였으며, 조사 결과 신뢰도 등 문제가 있는 항목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법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총 37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문에 참가한 인구 통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Pearson 상관계수, 요인분석, χ^2 -검증,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내의 구매

1) 내의 구매 장소

내의는 겉옷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므로 구매 장소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대형 할인점이 서울의 중심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내의류의 구매 장소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내의 구입은 대형 할인 매장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내의 전문점 22.5%, 백화점 19.0%의 순이었다. 홈쇼핑은 3.2%를 차지하나 인터넷 구입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정, 황선진(1998)의 연구에서 내의류는 백화점보다 대형할인점에서의 구매의도가 높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 (n=372)

인구 통계 변인		빈도(%)	인구 통계 변인		빈도(%)
나이	20대	90(24.2)	수입	200만원 미만	111(29.8)
	30대	93(25.0)		200만원 이상	106(28.5)
	40대	106(28.5)		300만원 이상	77(20.7)
	50대	83(22.3)		400만원 이상	78(21.0)
교육	중졸이하	40(10.8)	키	155cm 이하	73(19.6)
	고졸이하	130(34.9)		160cm 이하	162(43.5)
	대재이상	202(54.3)		165cm 이하	109(29.3)
					166cm 이상
직업	학생	56(15.1)	몸무게	50Kg 이하	105(28.2)
	주부, 무직	140(37.6)		55Kg 이하	108(29.0)
	생산직, 비숙련직	56(15.1)		60Kg 이하	87(23.4)
	사무직, 전문직	120(32.3)		61Kg 이상	72(19.4)

<표 2> 내의 구입 장소

(%)

인구 변인(명)	구입 장소	할인 매장	전문점	백화점	의류상가	양품점	홈쇼핑	인터넷
	전 체	40.9	22.5	19.0	13.1	8.6	3.2	0.5
나이	20대(90)	40.0	28.9	11.1	16.7	5.6	5.6	2.2
	30대(93)	43.0	22.6	22.6	15.1	2.2	3.2	0.0
	40대(106)	46.7	17.9	25.5	7.5	8.5	0.9	0.0
	50대(83)	31.7	22.0	15.9	13.4	19.5	3.7	0.0
	χ^2	4.52	3.38	7.78*	4.23	18.36***	3.37	6.28*
학력	중졸 이하(40)	39.0	14.6	4.9	12.2	29.3	4.9	0.0
	고졸 이하(130)	42.3	17.7	17.7	16.2	12.3	0.8	0.0
	대학 이상(202)	40.3	27.2	22.8	11.4	2.0	4.5	1.0
	χ^2	0.20	5.76	7.32*	1.61	35.90***	3.86	1.70
직업	학생 (56)	37.5	30.4	12.5	16.1	3.6	1.8	0.0
	주부·무직(140)	48.6	14.9	17.7	12.8	11.3	2.1	0.0
	생산·비숙련(56)	35.7	17.9	10.7	14.3	23.2	5.4	0.0
	사무·전문직(120)	35.8	30.0	27.5	11.7	0.8	4.2	1.7
	χ^2	5.58	11.22*	9.80*	0.73	27.64***	2.08	4.24
수입	200만원 미만(111)	47.8	16.8	13.3	8.0	15.9	1.8	0.9
	200만원 이상(106)	37.1	21.0	17.1	21.0	7.6	3.8	0.0
	300만원 이상(77)	44.2	24.7	19.5	13.0	5.2	2.6	1.0
	400만원 이상(78)	32.5	30.8	29.5	10.3	2.6	5.1	0.0
	χ^2	5.44	5.50	8.22*	8.84*	12.63**	1.9	2.08

*p<.05, **p<.01, ***p<.001

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문점에서 내의구입은 학생과 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내의 전문점은 대부분 품질 등을 믿을 수 있는 개별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므로 위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예측된다. 백화점에서 내의를 구입하는 계층은 30~40대로 학력이 높으며, 수입이 많은 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류상가에서의 내의 구입은 수입 200~300만원 계층에서 가장 많으며, 양품점에서 구매하는 집단은 백화점 이용 집단과 대칭되어 50대 이상, 저학력자,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생산직 또는 비숙련직 근무자이었다. 홈쇼핑을 이용한 구입 비율은 비교적 낮았으며, 인터넷 쇼핑은 20대만 이용한다는 특징적인 응답이 있었다.

2) 내의 구매량

평균 1년 동안의 내의 구매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의 내의는 1인당 1년에 약 2.8벌, 팬티를 포함한 하의 내의는 약 3.6벌을 구매하여 하의 내

<표 3> 내의 구매량

(매)

내의 종류		상의	하의
전 체		2.8	3.6
나이	20대	3.4 A	4.1 A
	30대	3.1 A	4.1 A
	40대	2.4 B	3.8 AB
	50대	2.2 B	2.3 B
	F값	12.26***	2.88*
학력	중졸 이하	1.9 C	3.8
	고졸 이하	2.5 B	3.8
	대학 이상	3.1 A	4.0
	F값	13.05***	1.16
직업	학생	3.4 A	4.1
	주부·무직	2.4 B	3.7
	생산·비숙련	2.2 B	3.8
	사무·전문직	3.3 A	4.1
	F값	14.11***	1.98
수입	200만원 미만	2.5 B	3.6 C
	200만원 이상	2.5 B	3.9 BC
	300만원 이상	2.8 B	4.0 AB
	400만원 이상	3.4 A	4.3 A
	F값	6.50***	4.52**

*p<.05, **p<.01, ***p<.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 (p<.05)

의 구매 별수가 더 많다. 이는 착용 빈도 또는 내구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내의 소비량은(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3) 런닝셔츠 약 1364만 벌, 팬티 3092만 벌로 팬티가 런닝셔츠의 2배 이상 소비되나, 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하여 1인당 내의 구입 별수가 많으며, 하의에 대한 상의 비율이 적은 것은 조사 대상자의 분포 특성과 상의 내의에 러닝셔츠 외에 7부와 9부 내의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의 내의는 나이가 적으며,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와 학생에서 구입 별수가 많으며, 하의 내의는 나이가 적으며, 수입이 많을 때 구입 매수가 많았다.

3) 내의 구입시 고려 요인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내의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 분석시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

하였고, 스크리 테스트에 의해 고유치 1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착용 시, 활동시, 입고 벗을 때와 장식에서의 편안함, 디자인, 가격 대비 품질과 가격이 포함되어 쾌적성/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촉감, 걸옷 맵시 영향 여부, 사이즈가 포함되어 착용성으로, 요인3은 바느질, 세탁 손쉬움과 형태 불변성이 포함되어 실용성으로, 요인4는 색상, 타인의 반응, 장식성, 유행성이 포함되어 심미성으로, 요인5는 정숙성과 품위를 포함하므로 상징성으로 명명하였다. 내의는 걸옷과 달리 심미성보다는 쾌적성과 착용성을 중시하여 구입함을 알 수 있었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내의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나이가 많을수록 실용성과 상징성을 중시하며, 학력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쾌적성/경제성의 점수는 낮으나 실용성을 중시하였으며, 심미성도 보통이하의 점수이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수입에 따라서는 200만

<표 4> 내의 구매요인

내용	평균값	요인 부하량				
		요인1 (쾌적성/경제성)	요인2 (착용성)	요인3 (실용성)	요인4 (심미성)	요인5 (상징성)
착용시 편안함	4.18	.740	.213	.212	-.003	.513
가격에 대비한 품질	4.12	.595	.143	.286	.010	.275
가격	4.07	.589	.004	.313	-.036	-.034
활동시 편안함	4.30	.558	.427	.205	-.023	.057
디자인	4.10	.498	.336	-.178	.167	.303
입고 벗기 편함	4.16	.457	.314	.268	-.036	.358
장식의 불편여부	3.99	.406	.373	-.007	-.339	.231
촉감	4.37	.196	.766	.279	.0168	-.021
걸옷 맵시 영향 여부	4.12	0.096	.719	.176	.110	.155
사이즈	4.53	.194	.695	.094	-.025	.058
바느질의 튼튼함	3.93	.144	.176	.800	.102	.133
세탁 손쉬움	4.08	.292	.101	.738	-.047	.076
형태 불변	3.96	.195	.349	.715	.019	.149
색상	2.20	.005	.010	-.029	.837	-.118
타인의 반응	2.52	.296	-.074	-.003	.687	.119
장식성	1.93	-.316	.106	.153	.681	-.046
유행성	2.63	-.159	.121	-.060	.553	.467
정숙성	3.64	.157	.000	.190	-.150	.852
품위	3.53	.169	.153	.133	.117	.821
고유치		5.521	2.213	1.531	1.235	1.077
전체 변량 (%)		14.11	12.65	11.92	11.318	10.93
누적 변량 (%)		14.11	26.65	38.68	50.00	60.94
신뢰도(α 값)		0.79	0.71	0.79	0.68	0.81

원 미만의 집단은 쾌적성/경제성 요인의 고려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경제성보다 쾌적성에 관한 항목 수가 많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실용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낮았다.

2. 내의 착용

1) 착용 내의 종류

계절과 인구변인에 따라 착용하는 상의 내의를 다

<표 5>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내의 구매요인

인구 변인	구입 장소	쾌적성/경제성	착용성	실용성	심미성	상징성
나이	20대	3.98	4.28	3.60 C	2.17	3.20 C
	30대	4.15	4.30	3.96 B	2.34	3.56 B
	40대	4.25	4.41	4.23 A	2.33	3.65 B
	50대	4.13	4.36	4.14 AB	2.48	3.92 A
	F	1.089	0.131	9.841***	1.204	6.350***
학력	중졸이하	4.04 B	4.36	4.35 A	2.50 A	3.58
	고졸	4.14 A	4.28	4.01 B	2.43 AB	3.63
	대학 이상	4.13 A	4.37	3.91 B	2.24 B	3.55
	F	2.853*	0.718	9.183***	3.086*	0.234
수입	200만원 미만	3.99 B	4.28	4.09 A	2.35	3.50
	200만원 이상	4.25 A	4.41	4.04 AB	2.36	3.61
	300만원 이상	4.09 AB	4.27	3.9 AB	2.34	3.52
	400만원 이상	4.20 A	4.38	3.88 B	2.23	3.72
	F	4.929**	1.316	4.216**	1.055	1.868

*p<.05, **p<.01, ***p<.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p<.05)

<표 6> 계절에 따라 착용하는 상의 내의

(%)

인구변인(명)	내의 종류	봄·가을				여름			겨울				
		민소매	3부	7부	안입음	민소매	3부	안입음	민소매	3부	7부	9부	안입음
전체		65.8	5.9	7.5	26.3	48.0	1.6	50.9	35.3	10.4	19.0	23.3	17.7
나이	20대(90)	66.7	3.3	1.1	28.9	48.9	2.2	51.1	43.3	8.9	6.7	23.3	26.7
	30대(93)	65.6	3.2	5.4	28.0	50.5	1.1	46.2	41.9	7.5	16.1	21.5	17.2
	40대(106)	64.2	5.7	4.7	29.2	42.5	0.9	58.5	28.3	11.3	19.8	26.4	18.9
	50대(83)	65.9	11.8	20.0	18.1	51.2	2.4	46.3	28.2	14.1	34.1	21.2	7.2
	χ^2	3.60	7.56	26.27***	3.08	1.92	0.99	3.94	8.47	2.40	22.08	0.96	11.31
학력	중졸 이하(40)	50.0	14.3	21.4	32.5	43.9	2.4	53.8	11.9	7.1	33.3	31.0	17.5
	고졸 이하(130)	64.6	3.1	7.7	27.7	37.7	2.3	60.8	36.2	11.5	16.9	19.2	20.0
	대학 이상(202)	69.3	5.9	4.5	24.3	55.4	1.0	44.1	39.6	10.4	17.3	24.3	16.3
	χ^2	7.68*	7.21*	14.48***	1.36	10.3**	1.07	8.98*	11.75**	0.66	6.34*	2.69	0.73
직업	학생(56)	60.7	3.6	3.6	20.7	46.4	3.6	43.1	42.9	8.9	5.4	19.6	22.4
	주부·무직(140)	66.2	8.5	12.0	23.4	42.3	0.7	50.3	35.9	13.4	20.4	21.1	17.9
	생산·비숙련(56)	55.4	3.6	8.9	35.7	32.7	5.5	57.1	19.6	8.9	23.2	25.0	21.4
	사무·전문직(120)	71.7	5.0	3.3	27.6	62.5	0.0	52.0	38.3	8.3	21.7	26.7	12.2
	χ^2	6.88	2.94	8.52*	4.81	17.18***	9.2*	2.57	7.92*	2.16	8.17*	1.65	3.54

*p<.05, **p<.01, ***p<.001

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계절에 착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상의 내의는 민소매 내의로 봄·가을 65.8%, 여름 48.0%, 겨울 3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계절에 착용 비율이 높은 민소매 내의는 다양한 소재나 가공을 개발하여, 각 계절에 적합한 내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의 내의를 안 입는 빈도도 높아, 봄·가을 26.3%, 여름 50.9%를 차지하며, 겨울에는 9부 소매 내의의 착용 비율이 23.3%이다. 인구변인에 따른 차이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매길이가 긴 내의를 착용하여, 50대는 봄·가을, 겨울에 7부내의 착용률이 높고, 겨울에 내의를 안 입는 비율은 낮다. 20대는 겨울에 7부내의의 착용률은 낮으며, 내의를 안 입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내의 대신 티셔츠 또는 폴로셔츠를 입기도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력에서 중졸이하는 봄·가을과 겨울에 3부와 7부 소매 내의의 착용은 많으나 민소매 착용이 적었고, 고졸이하는 여름에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대학이상은 모든 계절에 민소매 내의 착용비율이 높으나, 여름에 내의를 안 입는 비율은 가장 낮다. 직업에서 학생은 봄·가을, 겨울에 7부 소매 내의의 착용률이 낮고, 겨울에 민소매 착용률이 높다. 주부 또는 무직자, 생산직·비숙련직 종사자는 봄·가을에 7부 소매 내의의 착용비율이 높으며, 겨울에 민소매 착용율이 낮다.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는 여름에 민소매 내의 착용비율이 크게 높았다.

각 계절에 팬티를 제외한 하의내의 착용 실태는 <표 7>과 같다. 하의 내의는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모든 계절에 가장 높았으며, 표에 제시 되지 않았으나 팬티스타킹의 착용이 봄·가을 26.8%, 여름 8.8%, 겨울 28.2%로 내의류보다도 착용률이 높았다. 이는 시판하는 내의류

가 신축성, 두께, 신체 밀착성 등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봄·가을과 겨울에 긴 하의내의를 입는 비율은 긴소매 상의 내의와 거의 같았으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을 때에 긴 내의를 착용하여, 봄·가을에 7부와 9부, 여름에 7부, 겨울에는 9부 내의의 착용 비율이 높았다.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은 나이가 적을 때 모든 계절에서 높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봄·가을에만 고학력일수록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2) 착용 시 만족도

내의류의 기본 신체치수가 상의는 가슴둘레이며, 하의는 엉덩이 둘레로, 호칭은 100cm를 기준으로 5cm 간격으로 구분되고 있다(KS K 7812, KS K 0051). 착

<표 8> 내의 사이즈, 키, 몸무게간의 상관관계

연령	항목	사이즈	몸무게	키
전체	사이즈	-		
	몸무게	0.616**	-	
	키	0.069	0.215*	-
20대	사이즈	-		
	몸무게	0.523**	-	
	키	0.239*	0.444**	-
30대	사이즈	-		
	몸무게	0.695**	-	
	키	0.264*	0.395**	-
40대	사이즈	-		
	몸무게	0.526**	-	
	키	-0.081	0.220*	-
50대	사이즈	-		
	몸무게	0.583**	-	
	키	0.304**	0.468**	-

*p<.05, **p<.01

<표 7> 계절에 따라 착용하는 하의 내의

(%)

인구변인(명)	내의 종류	봄·가을			여름		겨울		
		7부	9부	안입음	7부	안입음	7부	9부	안입음
전체		13.4	2.1	59.4	2.4	89.0	19.8	24.1	35.5
나이	20대(90)	2.2	0.0	70.0	0.0	93.3	17.8	13.3	44.4
	30대(93)	6.5	0.0	72.0	1.1	94.6	17.2	17.2	48.4
	40대(106)	14.2	3.8	57.5	1.9	89.6	17.0	30.2	31.1
	50대(83)	32.1	4.8	36.1	7.1	77.1	28.6	35.7	16.9
	χ^2	41.90***	8.09*	29.12***	17.02**	16.73***	5.22	16.45***	23.36***
학력	중졸 이하(40)	29.3	7.3	42.5	9.8	82.5	26.8	48.8	22.5
	고졸 이하(130)	15.4	2.3	58.5	1.6	87.7	19.2	19.2	38.5
	대학 이상(202)	8.9	1.0	63.4	1.5	91.1	18.8	22.3	36.1
	χ^2	13.59**	6.53*	6.10*	14.76**	2.85	1.42	15.69***	3.49

*p<.05, **p<.01, ***p<.001

용하는 내의 사이즈와 신체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의 사이즈, 몸무게, 키 간의 상관관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착용하는 내의 사이즈와 몸무게의 상관계수는 0.616으로 $**p \leq .01$ 수준에서 높은 상관성을 가지나, 내의 사이즈와 키와는 상관성이 없었다. 내의 사이즈와 몸무게 간에는 연령에 따라 상관계수가 0.523~0.695로 높으며, 사이즈와 키 간에는 40대는 -0.081로 상관성이 없었으나, 그 외 연령의 상관계수는 0.239~0.304로 몸무게보다는 상관성이 낮았다. 연령에 따른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는 40대 0.220로 가장 낮으며 그 외의 연령은 0.395~0.468이므로, 40대에서 키에 비하여 특이하게 몸무게가 무거워 큰 사이즈의 내의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착용하는 내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길이, 품, 파임의 항목에서 '매우 짧다'와 '매우 얇다'는 1점, '매우 길다'와 '매우 깊다'는

5점으로, 하의 밴드 조임에서 '매우 조인다' 1점, '매우 느슨하다' 5점으로, 박음질항목에서는 '실이 매우 잘 풀어진다' 1점, '박음질 주위 천이 매우 잘 해진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에서 상의 길이, 품, 진동 들레는 만족하지만, 소매 길이는 2.88로 짧으며, 목 파임 3.07로 깊은 편이고, 팬티 등 하의의 고무 밴드 조임은 3.10으로 느슨한 편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집단에서 40대는 소매 길이가 긴 편이나 그 외는 소매가 짧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앞의 설명과 같이 40대 조사 대상자 중에는 키에 비하여 몸무게가 무거워 큰 사이즈를 착용함으로써 소매가 길어졌을 것이다. 또한 나이가 적은 계층은 진동 들레의 파임이 깊고, 나이가 많은 계층은 진동 들레의 파임이 얇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신체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의 집단에서 소매 길이에 유의차가 있어서, 키 155cm 이하는 소매

<표 9> 만족도 및 폐기사유

항목	상의 길이	상의 품	소매길이	목 파임	진동깊이	하의 밴드조임	박음질	폐기사유	
평균	3.03	3.00	2.88	3.07	3.00	3.10	2.45	2.97	
나이	20	2.86 B	3.04	2.64 B	3.22	3.17 A	2.91	2.71 A	3.51 A
	30	3.11 A	3.01	2.85 B	3.12	3.03 AB	3.25	2.55 A	3.11 AB
	40	3.13 A	3.05	3.13 A	2.97	2.95 B	3.03	2.44 A	2.91 B
	50	2.99 AB	2.89	2.85 B	2.96	2.84 B	3.23	2.10 B	2.31 C
	F	2.476	0.976	5.158**	1.927	3.297*	2.442	5.373***	10.714***
키	155cm 이하	3.10	2.96	3.15 A	3.17	3.07	3.11	2.63	3.14
	160cm 이하	3.06	2.99	2.90 AB	3.09	3.03	3.05	2.44	2.98
	165cm 이하	2.94	3.04	2.66 B	2.98	2.90	3.24	2.40	2.92
	166cm 이상	2.92	3.07	2.86 AB	3.07	3.07	2.93	2.50	2.86
	F	0.813	0.305	4.694**	0.698	1.138	1.158	0.724	0.046
몸무게	50Kg 이하	2.95	2.96 AB	2.86	3.07	3.10	3.16	2.58	3.41 A
	55Kg 이하	3.10	3.12 A	2.86	3.11	3.03	3.08	2.36	2.90 B
	60Kg 이하	3.08	2.89 B	2.97	3.07	2.93	2.95	2.52	2.90 B
	61Kg 이상	2.93	3.03 AB	2.81	3.00	2.90	3.21	2.36	2.55 B
	F	1.152	2.062	0.464	0.241	1.418	1.048	1.060	5.429***
학력	중졸	3.10	2.93	3.12	2.78 B	2.75 B	3.39 A	1.98 B	2.34 B
	고졸	3.02	2.98	2.84	3.00 AB	2.92 AB	3.17 AB	2.38 A	2.77 B
	대학이상	3.02	3.03	2.86	3.17 A	3.10 A	2.99 B	2.60a A	3.22 A
	F	0.194	0.451	4.729	4.158*	5.742**	3.247*	6.491**	8.153***
직업	학생	2.75 B	2.96	2.68 B	3.23	3.21 A	3.04 B	2.75 A	3.54 A
	주부·무직	3.01 A	2.95	2.87 AB	3.04	2.94 B	3.17 AB	2.37 BC	2.53 C
	생산·비숙련	3.23 A	3.11	2.89 AB	3.00	2.91 B	3.45 A	2.05 C	2.84 BC
	사무·전문직	3.08 A	3.03	2.98 A	3.06	3.01 AB	2.88 B	2.61 AB	3.28 AB
	F	3.828**	0.834	1.514	0.864	2.341	4.640**	5.426***	9.284***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 ($p < .05$)

길이가 긴 편으로, 그 외의 집단은 짧다고 하였으며, 몸무게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목 파임, 진동돌레는 길다고 하였으며, 하의밴드가 조이는 편이라 하였다. 직업에서 학생은 상의 길이가 짧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젊은 세대로 몸무게는 작으나 키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비숙련직 종사자는 하의 밴드 조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느슨한 편이라 하였으나, 사무직·전문직은 3점 이하로 조이는 편이라 하였다.

박음질의 평균은 2.45로 가장 낮아, 박음질이 쉽게 풀어져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번히 세탁을 행하는 내의는 세탁기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옷이 엉키며 큰 기계력을 받아 박음질이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내의는 박음질의 끝처리를 잘하여 박음질 풀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박음질에서 인구 변인별로는 50대, 중졸 이하의 학력, 생산직·비숙련직 종사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 이유로는 이들 집단들이 착용하는 제품의 박음질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바느질의 풀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팬티의 폐기사유에 대한 조사에서 '허리밴드의 늘어남' 1점, '천이 헤어짐' 5점으로 측정하였을 때의 평균점수는 2.97로 허리밴드가 늘어나서 폐기하는 측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변인별에서는 집단간 유의차가 커서, 나이가 많을수록 허리밴드가 늘어나서 폐기하며, 몸무게 50Kg 이하와 대졸이상의 학력, 직업으로는 학생과 사무직·전문직 종사자 만 천이 헤어져서, 나머지는 모두 허리밴드가 늘어나서 폐기하였다. 이와 같이 폐기 원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착용 상태와 관리 즉 세탁 방법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체형에 비하여 작은 내의를 착용하여 허리밴드가 늘 신장된 상태여서 늘어날 수도 있으나, 앞에서 허리밴드가 조인다고 응답한 계층은 오히려 대졸이상, 학생과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로 첫 번째 요인은 적합치 않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인 집단별 세탁 방법의 차이 유무를 살펴보았다.

3. 내의 관리

인구 변인에 따른 세탁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내의 세탁은 세탁기(3.34)로 찬물을 사용

<표 10> 세탁방법

인구변인	세탁방법	세탁기	찬물	삶음	표백제	린스
	평균	3.34	3.29	3.06	3.23	3.83
나이	20대	3.22 AB	3.26	2.63 B	3.09	3.62
	30대	3.01 B	3.04	3.02 A	3.37	3.91
	40대	3.60 A	3.42	3.32 A	3.17	3.97
	50대	3.49 A	3.42	3.23 A	3.32	3.81
	F	3.967**	2.339	6.381***	0.901	1.347
학력	중졸이하	3.55	3.67 A	3.71 A	3.36	4.16 A
	고졸이하	3.47	3.33 AB	3.09 B	3.22	3.96 AB
	대학이상	3.21	3.18 B	2.91 B	3.22	3.70 B
	F	2.027	3.281*	7.593***	0.206	3.004*
직업	학생	3.29	3.32	2.86 B	3.07	3.66
	주부·무직	3.39	3.25	3.27 A	3.41	3.85
	생산·비숙련	3.44	3.60	3.31 A	3.05	4.15
	사무·전문직	3.26	3.16	2.79 B	3.19	3.77
	F	0.337	2.010	4.945**	1.543	1.536
수입	200만원 이하	3.34 AB	3.37 AB	3.09	3.10	3.96 A
	300만원 이하	3.58 A	3.55 A	3.05	3.45	3.99 A
	400만원 이하	3.34 AB	3.19 BC	3.03	3.19	3.82 AB
	400만원~	3.01 B	2.90 C	3.05	3.17	3.47 B
	F	2.752*	5.550***	0.050	1.480	2.974*

* $p \leq 0.05$, ** $p \leq 0.01$, *** $p \leq 0.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p < 0.05$)

(3.29)하고, 삶아 세탁하는 경향(3.06)이 있으며 표백제(3.23)와 섬유린스(3.83)를 사용하는데, 특히 섬유린스의 사용이 매우 높았다. 나이에서 30대의 세탁기 사용이 적은 편이며, 20대는 삶음 비율이 가장 낮다. 학력이 낮을수록 찬물을 사용하며 삶음과 린스 사용비율이 높으며, 학생,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는 삶음 비율이 낮다. 월수입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내의 세탁 시 세탁기의 사용이 적으며, 더운물을 함께 사용하나 섬유린스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팬티 등을 사워할 때, 또는 매일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

앞에서 팬티를 폐기하는 이유로 허리 밴드가 늘어남이라 응답한 집단은 삶음 비율이 높은 집단과 일치하였다. 팬티의 허리밴드에는 신축성을 위해 스판덱스가 사용되는데,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 섬유로 열에 의해 우레탄결합, 요소결합,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결합이 분해, 절단되어 탄성을 잃게 된다(한국섬유공학회, 2001). 팬티를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여 반복하여 삶으면 밴드를 이루는 스판덱스가 탄성을 잃고 늘어나게 되어 내구성이 저하된다. 최근 세제에 산소계 표백제가 첨가되거나, 세탁 시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여 살균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소계 표백제의 사용으로 효과적인 세탁(정혜원 외, 2002)이 가능하므로, 내의의 허리밴드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탁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내의는 겉에서 보이지는 않으나 신체와 밀착하여 위생성, 기능성, 활동성에서 중요한 의복이므로 최근 내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류 구매 장소도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복 구매활동의 주 대상자인 20대부터 50대의 여성의 내의 구입, 착용, 불만족 및 관리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하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의 구입 장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은 대형할인점이며,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문점 및 백화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나이가 적으며, 고학력자, 고수입자의 내의 구매량이 많았다. 내의 구매 요인에서 쾌적성/경제성과 착용성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실용성과 심미성에서는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둘째, 가장 착용 빈도가 많은 것은 민소매 상의내의이며, 하의로는 팬티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연령자, 저학력자, 생산직·비숙련직 종사자는 소매 또는 바지길이가 긴 내의를 착용하였다. 내의 착용시의 불만족은 박음질이 잘 풀어지고 소매길이가 짧은 것이었다.

셋째, 내의는 대부분 찬물로 세탁기에서 표백제와 섬유린스를 사용하여 세탁하였으며, 유의차가 있는 항목으로 고수입자는 더운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주부 또는 생산직 등의 근로자는 삶음 빈도가 높았다. 팬티는 대부분 허리밴드가 늘어나서 폐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내의 생산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의는 대형할인점에서의 구입이 가장 많으며, 민소매 내의를 가장 많이 착용하므로, 내의 업체는 민소매의 할인점용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백화점용 내의는 심미성보다는 쾌적성과 착용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촉감이 우수한 리오셀, 신축성의 스판덱스 포함 소재, 흡한 속건 소재 등을 사용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킨 차별화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팬티스타킹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얇은 하의 내의의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내의는 착용과정에서 박음질이 풀어지지 않도록 재봉 마무리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내의 사이즈는 KS에 가슴둘레로 표시하여 크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나 연령에 따른 체형 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사이즈의 세분화는 내의의 편안한 착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내의 품질표시에는 세탁 방법을 기호만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음이 소재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여, 소비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의를 세탁하여 내구성을 증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만을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현재 내의 소재와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기능성 내의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 및 의복 구매 행동 등을 서울, 광역시, 농촌지역을 망라하여 확대 조사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세희, 이은영. (2001). 내의류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따른

- 시장 세분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73-88.
- 김미정, 황선진. (1998). 자기-감시, 상황, 광고소구유형이 속옷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67-278.
- 김유화, 권수애, 김은영. (2001). 20대 여성의 내의류 상표 선호도와 구매시 평가기준. *한국의류학회지*, 25(7), 1203-1214.
- 나영주, 정혜원. (1999). 여름철 남녀 내의의 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6(2), 186-195.
- 의류 소비시장규모. (2003, 4. 1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3, 7. 10, 자료출처 <http://www.kofoti.or.kr>.
- TV홈쇼핑 속옷 전쟁. (2003, 3. 2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3, 7. 1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이순원, 유효선, 최현수. (1988). 시판 내의류소재의 수분특성 및 착용감에 관한 연구(I) -시판 내의류 소재의 수분특성-. *대한가정학회지*, 26(4), 1-13.
- 이순원, 유효선, 조영미. (1989). 내의류의 수분특성 및 착용감에 관한 연구(II) -내의 착용시 생리적 반응과 착용감-. *대한가정학회지*, 27(3), 29-38.
- 이은영. (1999). *패션마케팅* (제2판). 교문사.
- 정혜원, 나영주. (1999). 세탁에 의한 편성물 내의의 변형. *한국의류학회지*, 23(5), 737-744.
- 정혜원, 유지혜, 방종호. (2002). 효소세제에 첨가한 과탄산나트륨이 세척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7), 1085-1092.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5), 737-747.
- 차옥선, 이일심. (1994). 일반 가정의 세탁 습관 및 반복 세탁에 의한 백색 면 내의의 잔류 오염. *한국의류학회지*, 18(4), 549-559.
- 한국섬유공학회. (2001). *최신합성섬유*. 형설출판사.
- KS K 7812. (1998). *면 런닝셔츠*. 한국표준협회.
- KS K0051. (1999). *여성복의 치수*. 한국표준협회.
- Quaynor, L., Nakajima, M., & Takahashi, M. (1999). Dimensional changes in knitted silk and cotton fabrics with laundering. *Textile Res. J.*, 69(4), 285-291.
- Mackay, C., Anand, S. C., & Bishop, D. P. (1999). Effects of laundering on the sensor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1×1 rib knitwear fabrics. *Textile Res. J.*, 69(4), 252-260.